

## 경계표지판 조형물 “졸속행정”

### 시민들, 혐오감과 굴욕감 인상주는 시설 철거해야 포천시,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 달라 그대로 존속



포천시 도로이용객과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한 도로변 경계표지판 조형물이 오히려 포천시민들에게 혐오감과 굴욕감을 준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와 친절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43번 국도와 47번 국도 포천 관문에 설치한 도로변 경계표지판 조형물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혐오감과 굴욕감을 준다며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의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음동에 거주하는 김모(38세)씨는 “도로변 경계표지판 조형물이

친절한 포천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는 커녕 사람이 메달려 있는 형상으로 보인다”며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데 흉물을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포천시 모 공무원은 “포천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는 조형물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이왕 도로변 경계표지판 조형물을 만들려면 포천을 상징하는 산뜻하고 밝은 이미지의 경계표지판 조형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포천시 관문에 설치한 경계표지판 조형물은 약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3번 국도 의정부 방향 경계지점과 47번 국도 내촌면 진목리 경계지점 각각 2개소씩 총 4개소에 높이 5.5m, 넓이 2.7m 스테인레스 재질에 스티로폼 공법을 이용해 설치했다.

도로변 경계표지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포천시는 시장과 부시장 관계공무원, 미대교수 1명, 토목설계교수 1명, 연구소 원장 1명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문화분과 위원회에서 2004년5월15일 경계표지판(안)을 확정된 후 5월22일 경계표지판 설치사업 발주 및 계약체결을 하고 6월31일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이같이 짧은 시간에 사업을 결정하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포천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견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경계표지판 조형물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경계표지판을 설치하여 포천을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포천시 문화적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를 홍보하고 도로이용객 및 관광객들에게 포천의 따뜻하고 친밀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 아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형 시설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교수형을 당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시민의 민원이 2건이 제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민원은 없다”고 말하고 “2건의 민원이 포천시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보는 시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市 ... 인력부족 관리의 효율성 차원

學界 ... 실효성 뭐냐, 비판적 시각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빠르면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포천시와 포천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포천영광수련원에서 실시된 2005년도 포천시 현안정책토론회에서 운영청 자치행정과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운영청 과장은 “최근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반월아트홀이나 여성회관 등은 시설관리인력이 부족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이 부실관리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운 과장은 또 “분노처리장은 포천시에서 직영하다 환경보호와 인력이 부족해 민간위탁한 시설로, 직영할 때 공무원들이 기계를 제대로 못 다루 수질관리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고 잔여시간대는 부적절하게 배출한 적도 있다”고 말하고 “포천시 전체로 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과토론회에 참석한 대진대 박희봉 교수는 “市費를 지출해 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학계

에서의 부정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남겨놓고 시설관리공단 인원만 증가시키는 것은 공무원 입장만 좋게 하는 것으로 언론과 학계에서는 관리공단 설립의 실효성 뭐냐라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성 자치행정 국장은 “공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경제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하고 “경제성 보다는 서비스 산출과 주변여론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위안설관(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설립시키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봉 교수는 “시설관리공단 조성은 수익성과 효율성 등의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市예산투자 및 계약화된 자료를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하고 “지자체 경영이라고 해서 지역 특산물 판매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다. 지자체는 기업도 아니고 경영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말리고 싶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포천시 市청사 건립 추진

### 청사건립 기금설치 운영조례 제정 매년 적립

포천시 청사 건립에 대해 市 관계자의 검토단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포천영광수련원에서 개최된 2005년도 포천시 현안정책 토론회 자치경영 분과토론회에서 한태호 회계과장은 2001년12월부터

2002년5월까지 청사건립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은 신축이전 54.4%, 존치 45.2%가 찬성했다고 밝히고, 2004년4월부터 포천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회계연도마다 25~35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전에 신북, 군내인접, 소흘 지역 등 3곳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신북지역은 포천 중심성과 상대적 낙후지역개발이라는 장점과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점이 있었으며, 군내인접지역은 인구가 많고 시설집적도가 높은 반면 부지매입

비와 불균형 개발의 단점, 소흘지역은 수도권 인구유입과 개발효과와 초기발생이라는 장점과 인접 도시권 흡수와 지리적 위치의 문제점이 단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또한 “새로 건립될 청사의 규모는 부지면적 2만~3만평, 건물면적 7~9천평 등으로 추정사업비는 503억~654억원 정도라는 것이 청사활용 및 이전타당성 연구용역보고 결과다”라며 현 청사 철거 후 재건축이나 증·개축보다 이전신축에 무게를 실어 설명했다.

아울러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2020년 市 인구가 35만명으로 추정되어 포천시 직제

가 5국23개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직무공간과 부속시설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행정기능에 대비하고 행정서비스 개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합 행정타운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봉 대진대 교수는 “시청사의 신축이전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주민들이 겪고있는 불편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나머지 문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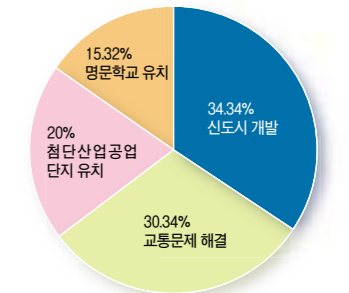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라이브풀 인터넷 설문조사

신도시 개발 필요성 34.34% 답변

본지가 지난 5월5일부터 6월29일까지 55일간 ‘포천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주·파주시와 같은 수준의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터넷 네티즌들은 1천255명이며, 참여한 네티즌 가운데, 양주시·파주시와 같은 수준의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전체 352명으로 34.34%를 차지해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1명으로 30.34%, 대기업과 첨단산업 공업단지 유치 205명으로 20%, 특목고와 같은 명문학교 유치가 157명으로 15.32%를 의견이 제시됐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안전은 사랑입니다**

안전에 행복을 더했습니다!

## ‘안전’에 돈이 든다구요? 「Clean」사업이 있습니다

「Clean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로시설개선지원 | 제조업 사업장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설비,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안전보건기술지원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Clean사업**으로 앞서가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1544-3088**